

“친환경 농산물의 신선함을 문 앞까지...”

전남농협-재경호남향우회 업무협약, 7월부터 ‘꾸러미 서비스’ 제철과일·건식품·나물반찬 재료 등 공급... 월 1회 3만9000원

전남 친환경 농가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측은 다음 달 고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운영한다.

‘꾸러미사업’은 유기농·무농약 생산과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 여종의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 가정에 매월 1~2회 택배로 발송해 주는 방식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기 배송 서비스를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라 부르고 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월정액을 내면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혹은 서비스)을 사용하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신선식품 구독경제 서비스로는 지난 2015년 정기 배송사업을 시작한 ‘마켓컬리’가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편리하게 받아 맛볼 수 있고, 생산 농업인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치중돼 있는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전남농협은 지난 15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청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50여 명의 고객에게 오는 7월부터 ‘꾸러미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경광주전남향우회가 지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활용되는 것이다. 향우회 청년회원들은 16일 나주시 산포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남농협의 친환경농산물을 총괄공급 과정을 견학하기도 했다.

꾸러미 회원들은 월 1회 3만9000원, 월 2회 7만5000원의 회비를 내고 제철 과일과 건식품, 나물반찬 재료 등을 받게 된다.

김성수향우회 청년회장은 “재경광주전남향우회는 올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남 친환경농산물 애용하기를 적극 추진해 고향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선식품 정기배송 서비스는 구독경제 성장세에 발맞춰 TV홈쇼핑까지 뛰어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초기에는 신생 업체들이 판로 확대의 통로로 활용했지만 대기업들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외식이 잦은 가정이거나 원하는 상품



오는 7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통해 정기 배송될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전남농협 제공>

이 배송되지 않았을 때 식품을 제때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구독경제 모델 도입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광주 평동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농산물을 직접 선별해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일반 인터넷 배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평동농협은 온라인 쇼핑몰(pdnlocalfood.com)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선보이는 200여 개의 당일 수확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무역협상 ‘G20 정상회담’ 변수 코스피 관망세... 시장변동성 대비 필요 위안화·원화 강세 흐름 이어질 것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2.25-2.5%)를 동결하고 점도표상 17명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연내 2차례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문구가 삭제됐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FOMC 이후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약세가 진행됐다.

4월 말부터 급등하며 119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도 장중 1160원까지 하락했고 위안화도 6.87위안으로 소폭 하락했다. 달러에 대한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FOMC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 정부도 위안화 추가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위안화와 함께 최근 원화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FOMC의 7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로 연준의 비둘기적인 정책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지만 FOMC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다. 5월 초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이후 무역협상에 분수령이 될 G20 정상회담이 이번주로 다가왔고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글로벌 증시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는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필자가 언급했듯이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국내증시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G20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이어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5개 기업과 그 계열사 및 연구소에도 ‘거래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번 G20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 안보를 근거로 어떤 경우에도 중국 IT 업체들을 통한 정보유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전향적인 양보가 없다면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실무협상에서 9월 UN총회 및 11월 APEC 정상회담까지 세부안을 조율하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관세 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을 돌파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산 전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와 중국도 결사항전으로 강경대응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인 2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번 주는 미중 무역협상에 주목하면서 G20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중국 관련주와 대북 관련주는 지난주 언급한대로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협상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진행상황에 집중하며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양파 농가, 시장 안정화 위해 전량 수매 요구

오늘 대책추구 기자회견... 농림부, 올해 2만t 수출 목표

정부가 올해 양파 2만6000t을 추가로 시장격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양파 농가가 ‘전량 수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양파생산자회 전남지부는 “24일 오전 10시 무안군 삼향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차 양파 수급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양파생산자회는 “정부가 6000t을 비축수매하고 농협을 통해 2만t을 수매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했지만, 아직도 양파 수확현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kg 한 망당 8000원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며 “여전히 양파는 들녘에서 상인들에게 한 망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파생산자회는 “정부가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전체 생산 물량을 농협이 수매하기로 한 무안군의 사례처럼 정부가 농협을 통해 양파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양파 가격안정대책 논의에 농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양파 과일 생산

량이 10만~12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2만t 수출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3400t) 보다 6배에 달하는 수출량으로, 수출확대를 통해 양파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최근 양파 주산지 지자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와 지자체는 표준 물류비의 지원비율을 29%(kg당 204원)에서 38%(kg당 274원)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리 양파를 대만·태국 등에 설치된 신선농산물 판매 거점인 ‘K-프레시 존’(K-Fresh Zone)에 보내거나 베트남 대형유통업체 판촉, 도매시장 연계 기획수출 등으로 긴급 수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우리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품위별 수출최저가격(체프 프라이스)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식물관람회에 양파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대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현장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양파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을 앞선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 27일 혁신선포식... 혁신방향 ‘하이파이브’ 발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7일 김인식 신임 사장의 취임 뒤 처음으로 혁신 선포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가지 혁신방향 ‘하이파이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날 오전 11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사 본사에서 농어업인 단체 대표와 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계획 선포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내걸고 5

대 혁신방향과 지향점을 발표했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 ▲농어업 미래 지속가능성·혁신성장 선도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동반자 ▲현장 경영을 통해 한걸음 더 가까이 등 5가지다.

공사는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등을 통해 농어촌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재능 나눔과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농협 ‘우수농산물 산지가격 특판 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2일까지 사흘간 광산구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우수농산물 산지가격 특판 행사’를 열었다. 농협이 운영하는 광주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유통센터 등 7곳이 있으며 6월 현재 33억6400만원의 총 매출을 올렸다. <광주농협 제공>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